

# 從教材探討韓語推測表現的文法特徵

郭秋雯

## 1. 前言

所謂推測，乃話者對於命題內容的真實性有所懷疑或不確定而產生的態度或判斷。韓語的推測用法有許多種類，其中 *ㄹ* 和 *ㄷ* *것이다* 兩者的比較，一直以來是韓國學者熱中研究的主題<sup>1</sup>，不過，早期的研究多半集中在「時態」或「相」的文法範疇，後來受西歐「敘法(mood)·情態(modality)」理論的影響，才開始有了「情態論」的主張。然而，不管在語意機能、句法構造、或是語用學的領域，大家仍各有主張，有人認為推測屬於「敘法」，有人則主張屬於「情態」，無一定論<sup>2</sup>，而且這些研究都著重於論理分析，在韓語教育的層面上，對於學習韓語的外國人去釐清推測用法的各種異同，幫助有限。

此外，韓國各大學出版的韓語教材裡所出現的推測句型，其用法的說明亦不夠明瞭，對其間的差異也沒多做比較，導致韓語學習者的混淆與誤用。本文站在外國人學習韓語的立場，從韓語教育的角度出發，除了將韓語教材裡所列的各種推測用法或句型一一找出，進行分析比較之外，也試著去補充教材裡語法說明的不足，俾使韓語學習者可以更清楚其用法上的差異。

本文的研究方法並沒有侷限在某種特定的方法論或文法模型，主要著重於語意的比較，試圖對各推測用法的語意機能做深入的探討，其次是句法機能上的分析探討，希冀透過比較分析後的結果整理，可以提供韓語學習者在學習上的一些指引。

<sup>1</sup> 最早開始比較 *ㄹ* 和 *ㄷ* *것* 的學者是 이정민(1975)、과 성기철(1976)。之後探討語意差異性的是 서정수(1978)和 이기용(1978)，但兩人的主張是對立的（前者以客觀性的強弱為基準做比較，後者則以主觀性強弱來判斷）。之後陸續有 김규철(1988), 김혜정(1994) 이남순(1998), 서민옥(1999), 장원철(2000), 임동훈(2001).....等人的研究出現。

<sup>2</sup> 這是從傳統文法的角度出發，因為 *ㄹ* 具有「未來、可能、推測」的語意，所以列為「敘法」。主張敘法論的學者有，남기십(1972), 나진석(1972), 김석득(1974), 신창돈(1972), 고영근(1965, 1976)等人。但 고영근(1986)首次將敘法與樣態兩分，說明敘法屬於文法範疇，所要表達的追加語意是以一定的動詞形態來呈現；而樣態則屬於語意範疇，依照敘法範疇或語彙的方式來呈現。這與Halliday(1970)「終結法為敘法；蓋然性、可能性、確實性等語意為樣態」的主張不謀而合。

## 2. 韓語的推測用法及句型

從文法的機能<sup>3</sup>來看，韓語的推測用法可以整理下列 6 種類型：

表一：

	構成方式	形態
第一類型	先語末語尾（情態素）	겠
		리
第二類型	終結語尾	르걸
第三類型	冠形詞形語尾 + 情態依存名詞 + 이다	르 것이다(르 거)
		르 터이다(르 텐데, 르 테니...)
		르 모양이다 <sup>4</sup>
第四類型	冠形詞形語尾 + 依存名詞 + 情態助動詞	르 듯하다
		르 듯싶다
		르 성싶다
		르 법하다
		르 것 같다
第五類型	疑問語尾 + 情態敘述語（情態慣用表現）	나/내가/르까/지 싶다
		나/내가/르까 보다
		나/내가/르까 한다
第六類型	名詞形語尾 + 動詞	나가/르지 모른다
		기 쉽다

以上六種類型的分類標準是以文法範疇及構成方式來區分，但對外國學習者而言，若非從事研究，很難以這樣的規則來學習這 16 種推測用法，因此許多韓語教育論者便主張，不一一分析其成分構造，而是將這些用法當成一個慣用句型，稱之為「統合構造體(통합구조체)」、「通語的構文(통어적 구문)」、「結合型

<sup>3</sup> 所謂文法機能是指與語意相關的文法要素之間的集合，見，李基宗(2001: 22)。

<sup>4</sup> ㄴ/는/르 모양이다 的冠形詞形語尾依時態有不同的形態出現，本文不一一列出，僅以未來的 ㄴ 做代表。

(결합형)」、「덩어리 表現(the chunks)」<sup>5</sup> 或「表現項目(표현항목)」<sup>6</sup>等，本文因以中文形式呈現，故採用較易理解的「統合構造體」名稱。

近年來因為韓語學習的盛行，許多倡導韓語教育論的學者都紛紛強調「統合構造體」對韓語學習者的重要性及必要性，他們認為若要擴大語言溝通能力，必須以一個句型或用法為單位，而非一個個形態加以組合來完成，因為這種學習方式對外國學習者而言，有其窒礙難行之處。本文亦贊成這樣的主張，但就多年的教學經驗得知，統合構造體固然方便於學習，但統合構造體本身的文法結構仍須說明清楚，如此才能正確地應用及擴充其用法，同時亦能避免時態、冠形詞形語尾或助詞等文法使用上的錯誤，否則學習者會誤以為統合構造體就是一個片語，是不變的，甚至再套上一個中文翻譯，誤用為「一對一」恆等的對應，把原本的美意變成語言進步的絆腳石。

以上所列的 16 種韓語推測表現統合構造體，並非每一個都為韓語學習者所熟悉，例如，성싶다, ㄹ 법하다, 나/ㄴ가 싶다 等，因為不曾出現在韓語教材的句型介紹裡，對許多學習者是很陌生的。此外，리, 듯싶다, 듯하다 多用在文言，也是不常被使用的句型。本文利用國立國語院所提供的《21 世紀世宗計畫研究·教育用現代國語平衡語料庫Ⅱ》(21 세기 세종 계획 연구·교육용 현대국어 균형 말뭉치Ⅱ) 進行使用頻率的調查，結果發現在口語中，推測用法的使用頻率以 겠 和 ㄹ 것이다 最高，성싶다 和 ㄹ 법하다 最低。

表二：

推測用法	使用頻度	推測用法	使用頻度
겠	5914	ㄹ지 모르다	184
ㄹ 것이다	5404	ㄹ 터이다	21
ㄹ 것 같다	2764	ㄹ 듯하다	18
ㄹ 모양이다	298	리	10
나/는가 보다	275	ㄹ 듯싶다	6
나/는가 싶다	220	ㄹ 법하다	2
나/는가 하다	205	ㄹ 성싶다	2

<sup>5</sup> 이윤지, 노지나(2003.6),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 한국어교육 14 권, 173-209

<sup>6</sup> 이미혜(200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표현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13-2: 205-225.

在這麼多的推測用法中，本文以  $\text{겠}$ ,  $\text{ㄴ 것이다}$ ,<sup>7</sup>  $\text{ㄴ 것 같다}$ ,  $\text{ㄴ 모양이다}$ ,  $\text{나/는가 보다}$  等五種口語中較常出現的推測句型為對象進行比較研究。這五種推測用法無論在語意或是語法特徵上相似性高，也是學習者容易混淆的句型，而釐清用法及差異性比較乃本文主旨。

### 3. 韓語教材中出現的推測用法

本文選定首爾大、延世大、高麗大、梨花女大（以下簡稱梨大）、及慶熙大等 5 大學校的語言教育院所出版的韓語教材，前 3 本可謂舊教材，後兩者則為新教材。在這個章節裡，本文除了整理各教材對推測用法的解說及進度編排，並比較新舊教材的優缺點外，也將以現地教學經驗提供韓語教材編著者一些參考。

表三：各教材推測用法分佈表

		首爾大	延世大	高麗大	梨大	慶熙大
겠	意志	1-11	1-3	1-14	2-4, 2-13	초 1-17
	推測	2-14	2-1	2-2	1-3, 3-2	
ㄴ 것이다	意志、未來	1-22/28	1-7	1-14	1-7	초 2-1
	推測	1-23,2-11	1-7	1-13	2-4	초 2-1
ㄴ 것 같다	推測	2-4/6	1-7	2-2/9/14	2-8	초 2-18
ㄴ 모양이다	推測	3-9	2-5	3-17	2-15	중 2-7
나/는가 보다	推測	3-7	2-6	2-1,3-3	4-8	중 1-3

註：(1-11)中的 1 是指第一冊，11 是指 11 課，以下皆同。

以上的分佈表主要是以推測用法的句型正式出現的單元為基準，事實上，除了正式句型介紹的單元外，仍有許多例句散佈在其他單元裡，這裡不一一列出。從上面數據不難發現，口語中使用頻率排名前三名的  $\text{겠}$ ,  $\text{ㄴ 것이다}$ ,  $\text{ㄴ 것 같다}$  三種句型，主要出現在 1、2 級的初級教材裡；而使用頻率排名第四、五的  $\text{ㄴ 모양이다}$  和  $\text{나/는가 보다}$  則出現在中級，雖然每間學校的編排進度不一，但原則上，到中級即可把這五種推測用法學畢，這一點新舊教材並無不同。

各教材對推測用法的詳細文法解說及代表例句整理如下。

<sup>7</sup>  $\text{ㄴ 것이다}$  與  $\text{ㄴ 거예요}$  是否同一語意，韓國語學界尚未有定論，本文不考慮其差異性，決定使用口語中使用頻率較高的  $\text{ㄴ 거예요}$  形態。

## ㄹ

## 首爾大

(1-11)－意志、意圖的先語末語尾(intentional ending) : will be A/will V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1 人稱

언제 친구를 만나겠어요? →2 人稱

(1-24)

무엇을 드시겠어요? →2 人稱      - 인삼차를 마시겠어요. (would like to)

뭘 드실 거예요?                      - 불고기를 먹겠어요. (would like to)

(1-27)

겨울 방학에 무엇을 하시겠어요?      - 저는 영국에 갈 거예요. (are going to)

(2-14)－推測 will be A/will V

고향에 돌아가면 가족이 기뻐하겠어요.(will be happy)      →3 人稱

내일 날씨가 좋겠지요?                      - 네, 추울 것 같아요. →3 人稱

철수 씨가 지금 집에 있겠지요?      - 네, 있을 거예요.      →3 人稱

(1-11) ㄹ 的用法很明顯與(2-14)是不一樣的，前者表意志，後者表推測，不過，教材中英文的句型解釋都一樣(will be A/will V)。此外，文法上的說明也不足，例如，主語人稱、終結語尾敘法等的制約條件的解說都沒有一一舉例說明。光是(2-14)就出現了 3 種推測句型；又為何同是 ㄹ 的問句，卻可以有兩種不同推測句型的回答？究竟它們之間的差別何在，沒有詳細說明，這會令學習者有誤用的可能。

另外，我們還在(2-6)課找到了一個 ㄹ 的相關句子。

(2-6)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6)的 (으)면 좋겠다 是個慣用句型，但教材並沒有對 ㄹ 做任何說明，究竟這裡的 ㄹ 是什麼用法，常常引起學生的質問。因為在(2-6)之前只學到 ㄹ 的意志用法，而這裡很明顯不是意志或意圖的語意，亦非推測用法，如果只告訴學生這是一個表「話者希望」的慣用法，一語帶過的話，那麼相信會有部分學生提問 ㄹ 的問題。

백봉자(2001: 303-304)中提到這樣的 ㄹ 是時態語尾，但究竟確切的語意為何，並無說明。究竟只是單純地表未來、抑或推測？如果是推測的話，那 14 課的推測用法尚未出現前就先行登場，似乎不太合理。事實上，ㄹ 除了意志和推測兩種語意外，還有口語中常用的委婉表現，例如下列句子中的 ㄹ。因此(2-6)課裡表達話者希望的 (으)면 좋겠다 句型裡的 ㄹ，並非推測，而是一種表達話者

期望的委婉表現。但這點，教材裡並沒有說明。

잘 모르겠습니다.(2-16)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너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  
 네가 와 주면 고맙겠구나.

相較之下，延世大的教材就簡單多了，不僅只出現在(1-3)一個單元裡，連說明都很省略，但很清楚地傳達表未來時制的 ㄹ, 會隨著人稱而有語意的不同，可惜沒有一一舉例說明。

### 延世大

(1-3)－未來時制；隨主語人稱不同表示意志、推測的語意。

오늘 저는 집에 있겠습니다. →1 人稱，表意志  
 오늘 오후에는 뭘 하시겠습니까? →2 人稱，表意志

高麗大學教材區分讀本與會話兩種，一一舉例如下。

### 高麗大讀本

(1-14)－表主語的意願或計畫 I will~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2-2/2-6)－表推測，推測的確信度比 ㄹ 것 같다 強，舉例：若看到一個人摔到地上，要說 아프겠다, 不能說 아플 것 같다; 但, 若猜測某事在某天可能會發生, 那麼用 ㄹ 것 같다 比 ㄹ 것 같다 適合。

내일은 오늘보다 덥겠습니다.(2-2)  
 어제 기분이 좋았겠습니다.  
 저 사람은 밥을 두 그릇은 먹겠다.(2-6)  
 저 사람은 꽤 인기있는 가수겠다.

在高麗大讀本的(2-2)裡，同時出現了 ㄹ 和 ㄹ 것 같다，也做了簡單的比較，但沒有實際舉例對照，可謂美中不足。同樣地，(2-6)將 ㄹ 的推測、意志用法同時介紹，也沒有區別用法的差異性。

(2-9) **아/어야/야겠다**－表必須或義務，主語為第一人稱時，表主語的決定或意願

내일부터는 걸어서 회사에 가야겠다.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겠다.

這裡強調主語為 1 人稱，但 ㄹ 仍無說明。下列(2-16) -지 않겠습니까 句型，也未對 ㄹ 加以說明。

(2-16) **지 않겠습니까** - 表禮貌的建議或請求，比 ㅂ시오或ㅂ시다來得恭敬

내일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이 옷 좀 다녀 주지 않겠습니까?

### 高麗大會話

(會話 1-19) - **아/어야겠어요** : 表必須或義務 will(probably) have to

아파서 병원에 가야겠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 옷을 더 입어야겠어요.

(會話 2-3) - **면 좋겠다** - 表主語的希望，口語中通常接過去時態，即使句子沒有過去的語意。

어떤 구두를 찾으세요? - 이 옷에 잘 어울리는 구두면(구두였으면) 좋겠어요.

내일 날씨 어떨까요? - 글썄요. 따뜻하면(따뜻했으면) 좋겠어요.

(會話 2-9) - **는 게 좋겠다** - 話者表達關切的意見 it will be better。

음식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 밥 대신에 죽을 드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운전할까요? - 그러는 게 좋겠어요.

(會話 2-12) - **ㄹ ㄹ다** : 表話者的推測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3 시에 출발했으니까 지금쯤 도착했겠다.

(會話 2-12) - **아/어서) 죽겠다**

바빠서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며칠만 푹 쉬었으면 좋겠어.

綜合以上，高麗大學教材裡的 ㄹ 以讀本(1-14)的意志用法先出現，之後(2-2)的推測用法才登場。值得一提的是，(2-2)句型的說明與 ㄹ 것 같다 做了詳細的比較。與其他教材一樣的，文中出現了許多表示委婉、客套用法的 ㄹ，如 (으)면 좋겠다, -는 게 좋겠다, 아/어서 죽겠다 等句型，但都沒有說明，只是當成一個句型，要學習者套著用即可。這樣的方式，有利有弊，對於只求口語說得通的學習者而言，「套句型」是個很好的方法，但對於想要多做變化或應用的學習者，用法的說明是很重要的。

### 梨大

(1-11) **아/어 주시겠습니까?** - 邀請句

문 좀 열어 주시겠습니까?

사진 좀 찍어 주시겠습니까?

在梨大教材裡，最先出現的 겠 句型中說明了 아/어주시겠습니까? 是在「向陌生人請託」時所使用的句型，但 겠 仍舊沒有說明。此外，令人訝異的是，在同一課(1-11, p.109)同一個對話裡出現了 겠 的 3 種用法，卻也都沒有說明。

죄송하지만 김진미 선생님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 →請託  
 수업에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意志  
알겠습니다. →話者委婉表現

另外，(1-13)和(2-4)都有 겠 的相關句型 — 겠어요和겠습니다，只是這兩個不同終結語尾的同一種用法卻像是兩種不同的句型一樣被區分介紹，其用意令人不解。此外，一個 겠습니다 的句型有「預測」與「未來時態」兩種解釋，卻沒任何比較說明，這亦是增加學習者的混淆

下列(1-13)的情境，出現了 겠 和 ㄹ 것이다 兩種用法，為何氣象播報員用 겠 來預報，而聽者卻以 ㄹ 것이다 來做轉述推測？這樣的舉例是否暗示了 겠 和 ㄹ 겁니다 使用背景的差異，因為教材中並沒有說明，學習者也無從判斷起，如果教材裡可以對這樣的情境加以解說的話，應該可以減少學習者的誤用，否則學習者會以為這兩種用法是可以通用的。

### (1-13) 겠습니다 — 預測

氣象報告：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兩人對話：내일 날씨는 어때요? — 비가 올 겁니다. 그리고 바람도 불 겁니다.

아까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오후에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 거래요.

### (2-4) 겠어요/겠습니다 — 未來時態

아나운서: 내일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 (2-13) (으)시겠습니까? — 向對方鄭重地勸誘時所使用的句型，比(으)세요/(으)십시오更 恭遜。

회사 도서실을 구경하시겠습니까? — 고맙습니다만, 다음 기회에 구경하겠습니다.

### 慶熙大

(초 1-17) — 沒有說明，但從例句中可知是意志、意圖的用法

뭘 드시겠어요?

7 시에 전화하겠습니다.

### ㄹ 거예요

### 首爾大

(1-22) — 未來 be going to



주말에 무엇을 할 거예요? - 나는 책을 읽을 거예요.  
누구를 만날 거예요? - 유 선생님을 만날 거예요.

**(1-23) - 推測 will**

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 - 네, 재미있을 거예요.  
영숙 씨가 오늘 학교에 올까요? - 네, 올 거예요.

**(1-28) ㄹ 거이다 - will/is going V**

저는 영국에 갈 것입니다. (is going to)  
우리는 냉면을 먹을 것입니다. (is going to)

**(2-18) A/V - (으)ㄹ 겁니다 - will be A/will V**

시험은 쉬울 겁니다. → 3 人稱  
주말에 역사책을 읽을 겁니다. → 1 人稱  
열심히 하면 한국말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 2 人稱

由上面可以得知，首爾大教材出現了 ㄹ 거예요, ㄹ 거이다 和 ㄹ 겁니다 三種異形態，而且英文翻譯不一，未來、意志、推測三種語意皆有，卻沒有明確地做區分比較，因此究竟是未來、意志抑或推測，學習者很難辨別。特別是像(1-22)的例句，學習者總認為有意志的語意，未來與意志之間的模糊性，在教材裡並沒有得到釐清。同樣的，下列的延世大教材裡雖然明白規範「主語 1、2 人稱時表單純未來，3 人稱表話者的推測」，但上述疑問仍待解決。另一方面，高麗大（會話 1-14）舉了主語 1、2 人稱的例句並解釋為「主語的未來動作或意志」，這明顯與首爾大、延世大的解釋有所不同。三大教材對一種句型解釋的不一致，令學習者無所適從。

**延世大**

**(1-7) ㄹ 거이다(ㄹ 거예요) - 主語 1、2 人稱表單純未來，3 人稱表話者的推測**

나는 내일 집에 있을 것입니다. → 1 人稱  
이번 방학에는 뭘 하실 거예요? → 2 人稱  
그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킬 거예요. → 3 人稱

**高麗大會話**

**(會話 1-13) - 話者的猜測或某件事的可能性 will probably**

영진 씨는 안 와요? - 곧 올 거예요.  
영진 씨 어디에 있어요? -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영진 씨 어제 부산에 갔어요? - 아마 갔을 거예요.

**(會話 1-14) - 主語的未來動作或意志 be going to**

내일 뭐 할 거예요? - 도봉산에 갈 거예요.  
뭘 입을 거예요? - 이 티셔츠 하고 청바지를 입을 거예요.

與其他教材不同的是，使用頻度相當高的 **ㄹ 것이다** 句型竟然沒收錄在高麗大的讀本，而是出現在會話課本的(1-13)及(1-14)。不過，(1-13)表推測的 **ㄹ 것이다** 句型練習中，幾乎每個句子中都加入了推測情態副詞 **아마**，**아마~ㄹ 것이다** 的共構現象表現得非常清楚，這對學習者而言是很好的提示。

### 梨大

#### (1-7) **ㄹ 겁니다** - 未來時態

제임스 시, 토요일 오후에 무엇을 할 겁니다?

- 오후 1 시에는 이발소에 갈 겁니다. 머리를 자를 겁니다.

토요일에 쇼핑을 할 겁니다?

- 아니요, 토요일에는 쇼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일요일 오후에 쇼핑을 할 겁니다.

此外，在(1-12)也有 **ㄹ 것이다** 的句子，但究竟是純未來、推測或是意志都是外國學習者難以辨識的部分。這當然導因於 **ㄹ 것이다** 的多重語意，因此，如果教材可以做更多的釐清，學習者也就比較可以正確學習，不是嗎？

(1-12) 내일 홍콩에 오실 거지요?

내일 청바지를 입고 있을 겁니다.

#### (2-4) **아마 -ㄹ 겁니다 / -있/았을 겁니다** - 推測

마이클 씨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잘 모르겠지만 아마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 對現在或未來的推測

김민호 씨는 결혼했어요?

-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 對過去的推測

### 慶熙大

#### (초 2-1) **ㄹ 거예요** - 沒有說明，不確定是純未來或意志

주말에 뭘 하실 거예요?

오후에 책을 읽을 거예요.

#### **ㄹ 거예요/ㄹ 겁니다** - Workbook

비빔밥을 먹겠어요. → 먹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 책을 다 읽겠습니다. → 읽을 겁니다.

Workbook 裡有一個將 **ㄹ** 改成 **ㄹ 것이다** 的練習，雖然沒有任何說明，但從例句中可以知道，這是表示意志的用法，**ㄹ** 和 **ㄹ 것이다** 雖同時有意志語意，但其差異性也是多種主張。教材裡沒有說明這兩種用法的差別，也許是顧慮到初學者可以不需要知道這麼複雜的細節差異，但這樣的練習反而讓學習者有誤以為這兩種用法可以替換使用的嫌疑，這點是不容否認的。

另外，Workbook 中對 **ㄹ 거예요** 設計了另一個練習：

주말에 공원에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월요일에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推測

이번 토요일에 무엇을 할 거예요?

-아마 기숙사에서 잠을 잘 거예요.→推測?意志?

這個部分的練習很清楚地告訴我們 **ㄹ 것이다** 有為未來／推測的語意，特別是和表推測的副詞 **아마** 共構，更可以確定其用法。然而，與上述幾個教材的問題一樣，上面句子中，當主語為第一人稱時，究竟是推測還是意志，其界線不明，教材裡也沒有釐清。關於這一點，筆者建議，日後新教材在修正時，可以考慮加入一些說明，讓學習者得以正確學習。

## ㄹ 것 같다

首爾大

### (2-4) N-인 것 같다 to look like N

저분은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 (2-6) A-(으)ㄹ 것 같다/V-는 것 같다 seems to be A/V

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look like)

이 책은 아주 재미있는 것 같군요. (look like)

지금 밖에는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look like)

### (2-6) A/V -(으)ㄹ 것 같다 It looks like N will V/be A

다음 주에는 일이 많아서 바쁠 것 같아요.

불고기가 맛있을 것 같아요.

영숙이는 집에 안 갈 것 같은데요.

從例句中可以知道 **ㄹ 것 같다** 的冠形詞形語尾形態，會隨著前面所加的名詞、動詞及形容詞以及時態的不同而有所差異。

延世大

**ㄹ 것 같다**—推測、預想 / **는 것 같다**—表現在進行中的動作或習慣的情態 / **(으)ㄹ 것 같다**—表動作或狀態完了的情態

(1-7)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어제 밤에 비가 온 것 같아요.

(1-7 句型練習) →沒有說明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많겠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延世大在句型練習中有 겠→ㄹ 것 같다 的練習，但沒有任何比較說明，學生常誤以為兩者是可以替換的，但事實並非如此。這和前面提到慶熙大(초 2-1)裡把 겠→ㄹ 것이다 的練習會引起誤用的狀況是一樣的。韓語教材中，很喜歡在沒有任何說明之下，機械化地以 B 句型替代 A 句型做練習，而引起無謂的誤解。

### 高麗大

(2-2)－表推測，當一件事即將發生或馬上就要發生，即使沒有被告知任何相關資訊。

비가 올 것 같다. / 비가 오는 것 같다. / 비가 온 것 같다.

철민씨는 노래를 잘할 것 같습니다.

(2-9)ㄴ 것 같다－seems like

30 분쯤 더 잔 것 같다.

이 신발은 작은 것 같다. 다른 신발로 바꾸어야겠다.

(2-14)(이)ㄴ 것 같다－It seems like

내일이 수미씨 생일인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의사인 것 같습니다.

(會話 1-19)－表可能的想法 (→有各種詞性的例句，同時對時態影響冠形詞形語尾的形態也都一一舉例。)

이 치마는 큰 것 같아요.

이 치마는 클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형이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선영 씨 생일이 언제예요? - 내일인 것 같아요.

### 梨大

(2-8) (으)ㄴ/는/(으)ㄹ 것 같다－表示不確定的推測

제임스 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예요?

- 정확하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온 것 같아요. 뉴욕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 慶熙大

(초 2-18) (→教材中對ㄹ 것 같다仍沒有任何解說，不過從例句可以清楚知道，動詞、形容詞以及現在、過去、未來的用法。)

오후에 비가 올 것 같아요.

동작동사－는 것 같아요 : 리 씨가 지금 자는 것 같아요.

동작동사－(으)ㄴ 것 같아요 : 리 씨가 어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상태동사－(으)ㄴ 것 같아요 : 빌리 씨가 피곤한 것 같아요.

### ㄴ/ㄹ 모양이다

### 首爾大

**(3-9) A/V-(으)ㄴ/는/(으)ㄹ 모양이다**—無解釋

준석 씨가 많이 아픈 모양이에요. 학교에 안 왔어요.  
 소나기가 내릴 모양이에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네요.  
 그 소설책이 다 팔린 모양이에요.

## 延世大

**(2-5) 는/(으)ㄴ/는/(으)ㄹ 모양이다**—seems like, gives the appearance of, looks like...

옷 입는 걸 보니까 외출할 모양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본 모양이죠?  
 헤어지게 되어서 섭섭한 모양입니다.

## 高麗大

**(3-17)**—無解釋

영준씨, 진호씨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바쁜 모양입니다.  
 영호 어디 나갔습니까?—친구 만나러 나간 모양이야.  
 영준씨는 내일 산에 안 간답니까?—네, 안 갈 모양입니다.

## 梨大

**(2-15)-(으)ㄴ/는 걸 보니까 -(으)ㄴ/는/(으)ㄹ 모양이다**—看了某個事情之後，說明事情的狀態或樣子，表示話者的確認或推測。此時，先行文是推測的根據。

날씨가 흐린 걸 보니까 비가 올 모양이에요.  
 영화관 앞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보니까 그 영화가 아주 재미있는 모양이다.

梨大的教材將 ㄹ 모양이다 的共構條件 는 걸 보니까 一起表現出來，成為統合構造體，讓學習者清楚地知道，ㄹ 모양이다 是在看到某個事件後所做的推測，因此較為客觀的用法。

## 慶熙大

**(중 2-7) -(으)ㄴ/는모양이다**—聽了對方的話之後，對狀況發生的理由做推測。

선생님 안색이 별로 밝지 않더군요.  
 -어디 편찮으신 모양이에요.

慶熙大的教材裡並沒有對 ㄹ 모양이다 做說明，不過在 workbook 裡的解說及例句，可以讓學習者知道，ㄹ 모양이다 的使用前提是要先聽到或看到某些事物，這可以與其他推測用法做區分。

**나/ㄴ가 보다**

## 首爾大

**(3-7) v-나 보다/A-(으)ㄴ가 보다/N 인가 보다**—無解釋

엄마가 음식을 하시나 봐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듣기 시험이 쉬웠나 봐요. 백점 받은 학생이 아주 많네요.  
 이 지갑은 누구 거죠? -아마 마이클 씨 지갑인가 봐요.

## 延世大

(2-6) **는가 보다 / -(으)니까 보다** - 疑問語尾는가+補助形容詞보다, 語意為「好像(it seems...)」. 動詞通常使用類似的句型-나 보다

그 여자는 아직 미혼인가 봐요.  
 감기 때문에 기침이 심한가 봅니다.  
 사람이 많은 걸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 봐요.

## 高麗大

(會話 2-1) - 表推測, 口語用나 보다較多.

現在式: V-나/는가 보다                    過去式: V-았/었나(는가) 보다  
           A-(으)니까 보다                    A-았/었나(는가) 보다  
           N-(이)니까 보다                    N-이었/였나(는가) 보다

수미 씨는 그 동안 굉장히 바빴나 봐요.  
 선영씨는 요즘 기분이 좋은가 봐요. 항상 싱글벙글 해요.  
 방 안이 좋용해요. 아이들이 자나 봐요.  
 땅 속에서 조개 껍데기가 많이 나왔어요. 전에는 여기가 바다였나 봐요.

## 梨大

(4-8) **-(으)니까 보다** - 看到某個狀況或事實並以此來推測其他的動作或狀態. 이다動詞用-(으)니까 보다, 動詞主要用나 보다.

민호씨가 하루 종일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보니 기분이 좋은가 봐요.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이렇게까지 늦는 걸 보니 아무래도 약속을 잊었나 봐요.

## 慶熙大

(중 1-3) **V 나 보다, A(으)니까 보다** - 話者以親身看到或聽到的事物來做推測。

빌리 씨가 오후부터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 많이 피곤한가 봐요.  
 난로에 기름이 없나 봐요. 불이 꺼졌어요.

綜合以上所有教材的解說可以發現, 所有的教材對這五種推測句型的文法說明極為簡單, 並沒有比較語意的差別, 同一個句型中也常常出現 2 種以上的語意, 卻沒有做比較, 讓學習者極為混淆. 此外, 對於主語的人稱、敘法(終結語尾)、時態等的共構或制約條件也都沒有說明. 也許編者考慮到初學者的韓語程度, 擔心描寫太多反而會讓初學者覺得太複雜, 因此以最精簡的方式呈現. 但若

是這樣，就更應該將那些與句型用法不同的例句去除，以免引起混亂。

中級的文法說明與初級一樣，亦是一語帶過或根本沒有說明，完全得靠教授者的解說。而且，多半的學習者認為教材中裡的說明過於理論，難以活用於口語中，導致許多窒礙難行之錯誤產生。

近來，新教材以「統合構造體」試圖讓學習者可以完整的使用一個句型，並告知這樣的句型應使用於何種情境。例如， 아마~ㄴ 겁니다, ㄴ/는 걸 보니까 ㄴ/는ㄴ 모양이다 (見梨大教材)，說明了 ㄴ 것이다 與 아마 的共構關係、ㄴ 모양이다 用在「看了某事件後」所做的推測……等等，讓學習者知道此句型更詳細的資訊，算是所有教材中解釋最清楚的一本。

然而，雖然這樣的「統合構造體+情境解說」確實改善了舊教材的不足，但更細膩的文法說明仍付之闕如，學習者一旦進入更高階段的學習或應用時，會發現沒有能力可以做句子擴充。也就是說，學習者即使學完整套教材，若沒有透過教授者的補充解說，對句型的擴充使用或正確應用在口語、作文中，仍有其困難度。這是編著教材的韓國學者所必須費心之處，應多站在外國人學習韓語的立場及心理來斟酌，這樣方能編出一本更適合外國人的教材。

#### 4. 文法書對推測用法的定義

在韓國語言學界，對於推測用法的語意比較，雖然研究頗多，但通常集中在 ㄴ 與 ㄴ 것이다 的比較，而且結論不一，甚至是南轅北轍。再加上，以往的研究多半以國語學為出發點，艱澀的理論更令外國學習者摸不著頭緒。本文以韓國語教育為出發點，對於較為深奧的理論比較，不多著墨，但站在母語為中文的學習者立場，釐清這些推測用法的混淆，試圖幫助學習者能正確地使用。

首先，先將這五種推測句型在各語法書裡的定義整理如下：<sup>8</sup>

#### ㄴ

##### 全球化

1. 未來即將要發生（單純的未來）：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2. 話者的推測或意見，可能性：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추운 걸 보니 곧 겨울이 오겠다.
3. 主語 1 人稱，表話者的意圖或意志：내일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sup>8</sup> 目前最常被使用且較新的四本語法書依出版順序為『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한국어세계화재단, 200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국립국어원, 2005),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이희자·이종희, 200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백봉자, 1999)

4. 用於疑問句，詢問對方的意思：등산을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지겠습니까?
5. 用於면 좋겠다句型，表話者的意見：며칠만 폭 쉬었으면 좋겠어.
6. 用於아/어서 죽겠다/미치겠다句型，表程度：배고파 죽겠어./요즘 바빠서 미치겠어.

#### 國語院

1. 用於疑問句，詢問對方的意向：이것 좀 잡수시겠습니까?/저 좀 도와 주시겠습니까?
2. 表話者的意圖或意志：손님, 어느 것으로 하시겠습니까?—이것으로 하겠습니다.
3. 看到說話當時的情況，以此為依據所做的推測：하늘을 보니까 내일은 비가 오겠네.
4. 即將要發生的未來：지금부터 김기자가 한국 경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희자

1. 即將要發生的未來，ㄹ 것의意思：다음에는 소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 推定或意志  
 밤하늘을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어요.→推測  
 나도 그만큼은 먹겠다.→可能性  
 내일 미국으로 떠나겠어.→意志  
 같이 가지겠어요?/유미야, 나 좀 도와 주겠니?→詢問聽者的意思，並邀請一起行動
3. 慣用表現  
 처음 뵙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招呼語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用在疑問句，表強調  
 속상해 죽겠어요.→아/어서 죽겠다는句型  
 알겠어요./모르겠어요.→接在 알다, 모르다 後面，婉轉地表達話者的意見

이희자 외(2001)簡單比較了 ㄹ 和 ㄹ 것이다 的差異，說明兩者都有推定和意圖的語意，但 ㄹ 것이다 不用於慣用表現中。不過對於兩者的其他差異，沒有解說。

#### 백봉자

1. 主語 1 人稱時，表話者的意圖或意志；主語為 2、3 人稱時表話者的推測  
 그만 먹겠습니다.  
 내일 날씨가 흐르겠다.  
 상을 타서 기쁘시겠어요.
2. 처음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等慣用句裡的 ㄹ ，是為了更確實地表現話者的想法，才插入此音節(syllable)。

백봉자(1999)的第二點說明與其他書有相當大的不同，對於第 2 種慣用句型多半都以「委婉表現」的來詮釋，但這本書裡反而以「更強調」的語意來解釋，這是值得注目之處。

#### ㄹ 것이다

##### 世界化

1. 話者的推測或斟酌：그 사람 생각은 좀 다를 것입니다.



2. 話者的意志：이번 겨울방학에는 일본에 갈 것이다.

#### 國語院

強烈的意志或意思、主觀的堅信未來要做某個行為：

나는 꼭 성공할 것이다. →1 人稱

오늘 점심에 뭘 먹을 거야? →2 人稱

這本書對 **겠** 和 **ㄹ 것이다** 做了比較，前者主要用在根據話者本身主觀的判斷所做的推測；後者則依據某個客觀且一般慣例所做的推測，並舉了下面句子做說明。

오후에 비가 오겠다.

오후에 비가 올 거야.

第一句是指話者看到烏雲密布的天空，或者突然感覺到腰痛了起來，依據這種主觀的判斷所做的推測；第二句則是依據所聽到的氣象報告（客觀的情報）推測出來的。換言之，**겠** 的主觀性比較強，**ㄹ 것이다** 則較具客觀性。

#### 이희자

1. 推測：내일 비가 올 거예요.

2. 意志：저는 내일 떠날 거예요.

3. 詢問對方的意思：선생님께서 언제 떠나실 거예요?

#### 백봉자

表話者的意志或推測：졸업하고 취직할 거야. / 시골은 여기보다 더 답답할 거예요.

這本書裡也對 **겠** 和 **ㄹ 것이다** 做了比較，認為 **겠** 在 1 人稱時，表現話者很強的主觀意志，而 **ㄹ 것이다** 則將話者的意志客觀化；第 3 人稱時，**겠** 呈現很強的主觀性推測，**ㄹ 것이다** 以很強的客觀性意志來做推測，這點和國語院的主張是一樣的。

나는 오늘 이 일을 끝마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일을 끝마칠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 비가 오겠다.

오늘 오후에는 비가 올 것이다.

주말이니까 극장이 만원이겠다.

주말이니까 극장이 만원일 것이다.

### **ㄹ 것 같다**

#### 世界化

1. 看到什麼之後，對於之後會發生或做什麼事，所做的猜測，接於動詞之後：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것 같다.

2. 認為有某種狀態，用於形容詞之後：선생님 닮아서 아이가 예쁠 것 같아요.

3. 難以直接說出口或為難時：저는 내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요.

#### 國語院

由各種狀況來大約猜測未來、現在或過去的事件：오후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요.

#### 이희자

表話者的推測：토요일이라서 극장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 백봉자

表話者的推測或斷定。

한국말을 잘못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은 외국인인 것 같다.

나는 음악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이 김치가 매울 것 같다.

### ㄹ 모양이다

#### 世界化

好像會／有什麼事情的樣子：구름이 잔뜩 낀 것을 보니 곧 비가 올 모양이에요.

#### 國語院

由許多情況來看，猜測以後或將要發生的事情或狀態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네요. 비가 올 모양이에요.

這句指的是，看到天空烏雲變多了，然後猜測可能會下雨。此外，書中也對 ㄹ 모양이다 和 ㄹ 것 같다 做了比較，ㄹ 모양이다 是透過看到周邊某些狀況或樣子做出的推測，因此當話者具有直接經驗時是不能使用的，這時反倒用 ㄹ 것 같다 較為適切。

다음 주말쯤 졸업 사진을 찍을 모양이야.

다음 주말쯤 졸업 사진을 찍을 것 같아.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을 모양이에요.

전쟁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 이희자

對未來將要發生的事有所推測：밖을 보니 비가 올 모양이에요.

#### 백봉자

話者看到事情或事物的樣子，站在客觀的立場來推測，主語不能是第一人稱。相反地 ㄹ 것 같다는 主觀的推測。

말하는 걸 보니 교포인 모양이야.

술 때문에 머리가 아프신 모양입니다.

### ㄴ/은가 보다

#### 世界化

推測或想法，形容詞後面用‘ㄴ/은가 보다’、動詞或‘있다, 없다’，‘있/았/였’之後‘는가 보다’或‘나 보다’都可以用。

민지 씨는 요즘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마도 그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

## 國語院

由某個情況來猜測可能是那樣，但主語不能是나, 우리, 而且不能用於話者直接經驗過的事實來做沒有確信或自信的推測。

철수는 자는가 봐요.

\*나는 자는가 봐요.

영희는 어제 집에 갔는가 보다.

\*우리는 공부하는가 보다.

因此，上面第一個句子，話者並沒有親眼目睹哲洙在睡覺，可能房間太安靜了，所以猜測他可能在睡覺。此外，此書也提到，**ㄹ 것 같다** 與 **나/는가 보다**, **ㄹ 모양이다** 最大的差別在，前者是根據話者自己的經驗所做的推測，後兩者則是根據間接經驗或某些端倪來判斷或推測。換言之，**ㄹ 것 같다** 是以話者為主體，根據其主觀的經驗、知識所做的推測；**나/는가 보다** 和 **ㄹ 모양이다** 則根據客觀的事實、情報來推測。因此，下列以 **제 생각으로** (依我看來、我覺得) 為前提的句子，**나/는가 보다** 和 **ㄹ 모양이다** 就不適用了。

제 생각으로는 영수 씨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영수 씨가 열심히 하는 모양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영수 씨가 열심히 하나 봐요.

## 이희자

는가 보다用於動詞、있다/없다, 自己問自己或推測：누가 오는가 보다.

나 보다猜測「好像是那樣」：지금 퇴근하나 보죠.

## 백봉자

看到某個事實並以此推測，主語只能用在 2、3 人稱，若要用 1 人稱為主語時，必須將自己 3 人稱化（客觀化）。나 보다用於動詞、는가 보다用於形容詞及이다, 但接了時態語尾，則不分詞性兩者都可以使用。此外，此書也對는 것 같다, 는 모양이다, 나 보다做了比較，說明此 3 種句型的語意差異是來自於같다, 모양, 보다這 3 個單字原本意義的不同。

는 것 같다：某個事物的動作或狀態與另一個事物的動作或狀態一樣，由此來推測。

는 모양이다：以某個事物的模樣來推論某個動作或狀態。

나 보다：看到某個事物來推測某個動作或狀態。

綜合以上 4 本語法書對 5 個推測用法的說明，其異同之處列表如下。

表四：

意志		推測				其他 / 備註	
主客觀	人稱	主客觀	透過某些情況	依據標準	人稱限制		

겠	主觀	1,2	強的主觀	∨	自身主觀判斷	3	也用於未來、可能性、慣用表現
ㄹ 것이다	客觀 <sup>9</sup>	×	客觀	×	客觀情報	×	
ㄹ 것 같다	×		主觀	∨	直接經驗	×	
ㄹ 모양이다	×		客觀	∨	間接經驗/ 客觀情報	2,3	
나/는가 보다	×		客觀	∨	間接經驗/ 客觀情報	2,3	1.主語 1 人稱，須 3 人稱化(백) 2.形容詞,이다不用於나 보다，但 加了時態則不限(세,백) 3.는가 보다用於있다/없다、動詞 (이)

## 5. 推測用法的文法特徵<sup>10</sup>

### 5.1 共構關係

由以上論述可得知，ㄹ 모양이다, 나/는가 보다 的屬性最為相似，除了沒有意志的用法外，在推測用法方面，客觀、透過某些情況來推測，以及主語不能為第一人稱等 3 種特性是一致的。但前者的推測著重在「透過（說話的）模樣」，後者則著重在「透過視覺」來進行推測。

而常常與這兩者比較的 ㄹ 것 같다 雖然屬性極為相似，都是透過某些情況來推測，但不同的是，ㄹ 것 같다 判斷的依據須為直接經驗，因此較為主觀；此外，人稱的不限亦是差異之處。依照這些標準舉例說明如下：

말하는 걸 보니 외국사람인 것 같아요. 看他說話，好像是外國人  
말하는 걸 보니 외국사람인 모양이에요. 看他說話的樣子，好像是外國人  
말하는 걸 보니 외국사람인가 봐요. 看他說話(的樣子)，可能是外國人

上面這三個用法，都可以和 ~걸 보니 或「透過某些情況」等用法共構，但這三句的情境背景稍有不同，第一句是話者直接與外國人說話或聽到時所做的推測，甚或強調話者是從自身固有的經驗來判斷，因此主體性推測較強<sup>11</sup>；第二、三句的話者可能是從遠處或在旁邊看或聽到時所做的推測，沒有經過話者既有的主觀經驗，可謂中立客觀的推測。我們可以再透過下列句子進一步釐清其差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

<sup>9</sup> 國語院主張 ㄹ 것이다

為強烈的意志或意思，以及主觀的堅信未來要做某個行為，這一點與其他語法書有很大的不同。

<sup>10</sup> 本文皆以動詞為對象，形容詞不另加說明。

<sup>11</sup> 所謂主體性推測是指，採取判斷者態度之推測形式，帶有話者固有的判斷，判斷的最終責任在話者本身。（김동욱, 2005: 182）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범인인 모양이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범인인가 보다.

(제가) 불고기를 먹어 보니까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고기를 먹어 보니까 맛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불고기를 먹어 보니까 맛있는가 봐요.

這是因為 ㄹ 것 같다 判斷的主體為話者，話者的想法或經驗很重要，因此與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 가 보니까/-ㄹ 먹어 보니까 …… 等表示話者親身經驗的表現產生共構關係也就變得理所當然。但 ㄹ 모양이다 和 나/는가 보다는判斷主體不在話者，因此不適合與表示話者親身經驗的表現共構。

此外，可以與「透過某些情況(~는 걸 보니)」用法共構的還有 ㄹ ，但 ㄹ 屬較強的主觀推測，話者的確信度很高。

말하는 걸 보니 외국사람이겠어요. 看他說話(的樣子)，應該／一定是外國人

ㄹ 것이다 在各參考書中多半被拿來與 ㄹ 做比較，結論是比 ㄹ 具客觀性，但比起其他句型，仍偏屬主觀推測，至於其他語法上的限制都沒被描述。下列例句延伸了上述「透過某些情況」的共構條件，雖然所有的教材或語法書中都沒提到這一點，但這個句子是成立的，表示話者透過主觀認知所做的推測，而這個推測確信度是很高的，可以說，話者幾乎確定這個人是外國人。

말하는 걸 보니 외국사람일 거야. 看他說話(的樣子)，應該／一定是外國人

李基宗(2001: 150)對 ㄹ 것이다 有很詳細的論述，除了談到主觀性之外，也論及到由於 ㄹ 것이다 常透過理論性的判斷過程進行推理，所以同時也具有客觀性。對於主觀、客觀的判定，韓國人的思考方式和外國學習者不一定相同，甚至連韓國人之間也是歧見頗多，因此本文先以多數人的主張，即主觀判斷，來定義 ㄹ 것이다 。

李基宗(2001: 155-161)中也提到表示假設的 (으)면、아/어도 和表示原因的 -니까 等語尾與 ㄹ 것이다 的共構關係，這一點也是值得教材收錄的部分。以下擷取書中幾個例句做說明。

이곳에서 꿈쩍하지 못하면 우린 죽을 거야.

새벽이 오면 기온이 내려갈 거야.

네가 놀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쉬지 않고 달린다고 해도 열 시간은 넘게 걸릴 것이다.

번역 한 번 해 봐라. 출판사가 튼튼하니까 원고료 넉넉히 나올 게다.  
 식사나 하러 갑시다. 그래도 병원 밥이라고 전방보다는 좀 나을 거요.  
 매끼마다 계란에다 우유까지 나오니까요.

此外，ㄹ 것이다 也可以以有意識地被想定、或幾乎確定的可能命題為前提來做推測。

결혼을 안 한 여자이니까 처녀일 것은 당연했다.  
 가능한 한 이곳의 일과시간을 지켜 주시는 게 서로 편할 거예요. 강제적인  
 것은 조금도 없지만.

그렇게 안절부절하면 시간이 더 안 가는 법입니다.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 올  
거예요.<sup>12</sup>

綜言之，ㄹ 것이다 除了推測之外，也有確信度極高的可能表現。這個重點在口語中用得頻率不低，但各教材中卻不曾提到。

上面所提到的共構關係對學習者是一個很好的判斷標準，例如 아마，아/어도 和 ㄹ 것이다 的共構關係，<sup>13</sup>以及上述 ~는 걸 보니 與推測用法的共構等提示都對外國學習者在學習上有很大的幫助，如果教材裡也能做點整理說明的話，那麼學習者應該可以較有系統地習得。

## 5.2 句法的制約

ㄹ 것 같다 不管在人稱、時態或敘法的使用上，限制較少；相對的，ㄹ 모양이다 和 나/는가 보다 比較多。例如，보다 和 모양이다 在時態語尾上有很大的限制，在敘法上，則不能用在疑問句。不過勸誘句和命令句不適用於 3 種句型，這點是一致的。

비가 올 것 같 {다, 았다, \*졌다} .  
 비가 올 모양이 {다, \*있었다, \*졌다} .  
 비가 오는가 보 {다, \*았다, \*졌다} .

비가 올/오는 것 같아요?

<sup>12</sup> 此例句引用自 전나영(1998: 182-183)。

<sup>13</sup> 아마 (也許) 可以與推測的所有句型發生共構關係 (前 3 句子為延世大學教材中的例句 (依序為 48 課、27 課、16 課)，第 4 句引用自網路)。

\*비가 올 모양이에요?<sup>14</sup>  
\*비가 오는가/오나 봐요?

오늘 비가 올 것 같 {\*자/\*아라} .  
오늘 일찍 끝날 모양이 {\*자/\*아라} .  
오늘 일찍 끝나는가 보 {\*자/\*아라} .

這裡要補充說明的是， 모양이다 後面雖然可以接過去時態語尾，但只限用 다 和 (스)버니다 終結語尾，這是因為這兩種語尾可以是自言自語或對不特定對象說話一樣地在表現，如果像 아/어, 네, 군 等其他語尾的話，因為會牽扯到聽者，所以不能接於後。<sup>15</sup>

비가 올 모양이었 {\*어, \*네, \*군, 다, 습니다} .

在人稱的使用上， ㄹ 것 같다 比較自由，但是在第 1 人稱主語時，會因為情況而有所限制。下列 3 個句子中，前兩句的適用，與其說是對自己的猜測，其實重點在強調事件發生的可能性，即，第一句，有妨礙對方的可能性，第二句，不確定是否會遲到，有遲到的可能性。第三句是錯誤的句子，因為對於自身的行動狀況，不能採用確信度很低的 ㄹ 것 같다。<sup>16</sup>

바쁘실 텐데 제가 방해할 한 것 같습니다.  
모임에 늦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한 겁니다.  
어디 나가세요? - \*우체국에 좀 갔다 올 것 같습니다.

接下來是 나/는가 보다 的人稱問題， 백봉자(1999)提到 나/는가 보다 限用第 2、3 人稱，也就是主語不能是第 1 人稱，若要用 1 人稱為主語時，必須將自己 3 人稱化（客觀化）。

내가 밥을 많이 먹는 것 같다./\*먹는 모양이다./<sup>17</sup>먹나 보다. →1 人稱  
네가 밥을 많이 먹는 것 같다./먹는 모양이다./<sup>17</sup>먹나 보다. →2 人稱  
철수가 밥을 많이 먹는 것 같다./먹는 모양이다./<sup>17</sup>먹나 보다. →3 人稱

由上面的句子可以發現， 나/는가 보다 是可以用在第一人稱，也就是將自

<sup>14</sup> 모양이다 可以接表確認的語尾 지，但這裡的 지 並非話者的推測，是話者已經知道的事實，只是在邀請聽者的認同。(장경희 1985: 110-117)

철수가 범인인 모양이지?

<sup>15</sup> 모양이다 加過去時態多半都用在文言體。(이기중: 1996)

<sup>16</sup> 有關這 5 個推測用法的確信度，由高而低依序為 >ㄹ 것이다>나 보다>ㄹ 모양이다>ㄹ 것 같다(전나영: 1998)

己視為第三者站在超然的立場來評斷自己，這就是所謂的「將自己 3 人稱化」。但這樣的用法除了 *나는가 보다* 外，*ㄹ 모양이다* 似乎也可以適用，但沒有任何一本語法書上有這樣的論述。我們借用 *김동욱(2000: 191)* 的例句(30)來說明。

이런 것도 못 들어올리다니, 나도 나이를 먹었는가 보네.  
이런 것도 못 들어올리다니, 나도 나이를 먹은 모양이네.

這二句都是正確的法，話者雖為第一人稱，但跳出自己的角色，有如第三者在看自己，以客觀、超然的態度來評斷自己，這樣的情境下，是允許主語為第一人稱的。再舉一個例句加以說明：

내가 너무 잤나 봐요. (벨소리를 못 들었어요.)

這句話的背景是，A 打電話給 B，但 B 沒接電話，隔天 A 問 B 怎麼沒接電話，B 說：「我大概睡太熟了，沒聽到電話鈴聲」，B 句的主語是一人稱的「我」，但卻有如第三者在看整個事件，以客觀的角度來推測「自己睡太熟以致沒聽到電話聲」這件事。

*겠* 和 *ㄹ 것이다* 沒有人稱限制，只是隨著人稱的不同，語意會有所不同，特別是第 2 人稱時，制約最多。

- 1 人稱 나는 오늘 학교에 가겠어. →意志  
나는 오늘 학교에 갈 거야. →意志、推測
- 2 人稱 너 내일 가겠어? →可能性  
손님,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意志  
너 내일 갈 거야? →意志、推測
- 3 人稱 철수가 내일 가겠어? →推測  
철수가 내일 갈 거야? →推測

與 *ㄹ 것 같다*, *ㄹ 모양이다*, *는가나 보다* 一樣，*겠* 和 *ㄹ 것이다* 不能搭用命令句和勸誘句，這是因為推測用法乃表現話者對命題內容之心理態度，因此只適用傳達陳述的直述句。<sup>17</sup> *ㄹ 것이다* 亦不能用在感嘆句及疑問句(2 人稱除外)。

<sup>17</sup> 有關敘法與情態詞的相關論文請參照 *고영근(1986)*, *남기심(1989)*, *차현실(1986)*, *Bybee(1985)*。



- 철수가 학교에 가겠 { \*어라/\*자 } .  
 철수가 학교에 갈 것이 { \*라/\*자 } .  
 철수가 학교에 {가겠군/\*갈 것이군} .  
 철수가 학교에 가 {겠어요?/\*갈 거예요?} .

事實上，若考慮人稱搭配敘法的話，情況更加複雜，特別是 겠 和 ㄹ 것이다，因為這兩個句型牽扯到意志及推測用法，以下就上述 5 種推測句型在人稱與敘法上的限制情況再舉例說明如下。

### 1 人稱—直述句／疑問句

- a. 내가 가겠 {어요.<sup>18</sup> / \*어요?}
- b. 내가 갈 거 {예요. / \*예요?}
- c. 내가 갈 것 같 {?아요.(→特定情況下可用) / 아요?}
- d. 내가 갈 모양 {\*이에요. / \*이에요?}
- e. 내가 가는가 {?봐요.(→특정 맥락에서 가능) / \*봐요?}

### 2 人稱—直述句／疑問句

- a. 너 내일 가겠 { \*어. / \*어?}
- b. 너 내일 갈 거 { \*거야. / 야?}
- c. 너 내일 갈 것 같 {?아.(→特定情況下可用) / \*아요?}
- d. 너 내일 갈 모양 { \*이야. / \*이야?}
- e. 너 내일 가는가 { \*봐. / ?봐? (→特定情況下可用)}

### 3 人稱—直述句／疑問句

- a. 비가 오겠 {어요. / 어요?}
- b. 비가 올 거 {예요. / \*예요?}
- c. 비가 올 것 같 {아요. / 아요?}
- d. 비가 올 모양 {이에요. / \*이에요?}
- e. 비가 오는가/왔나 {봐요. / \*봐요?}

在疑問句中，第 2 人稱 a. 너 내일 오겠어? 的 겠 是指「可能性」，非推測或意志，所以這裡標示為錯誤句子。而第 3 人稱 b. 비가 올 거예요? 之所以為錯誤句子，乃因為大自然現象並非像有生命的動物一樣可以主動動作，相較之下，同樣也是第 3 人稱主語的 철수가 올 거예요?，因為主詞是「人」，所以句子成立。這麼複雜的規則乃導因於 ㄹ 것이다 意志與推測之模糊語意。

綜合以上論述，可以將 5 種推測句型的句法制約整理列表如下。

<sup>18</sup> 겠 和 ㄹ 것이다 的第一人稱中，意志與未來的用法都有，有時難以區分，特別是 겠，幾乎都用在主語的意志表現。（區分這兩者的意志或推測亦非本文主旨，在此不多贅言。）

表五：

	1 人稱		2 人稱		3 人稱	
	直述句	疑問句	直述句	疑問句	直述句	疑問句
겠	○	×	×	×	○	○
ㄹ 것이다	○	×	×	○	○	? ○
ㄹ 것 같다	? ○	○	? ○	×	○	○
ㄹ 모양이다	×	×	×	×	○	×
는가나 보다	? ○	×	×	? ○	○	×

※ 「? ○」表示只在特定的情境下可以使用

從上表可以得知，這五種推測表現在人稱與敘法上的制約情形，雖然這些句子經過幾位韓國語言學者及專家檢視過<sup>19</sup>，但也許仍有歧見或疏漏之處，本文僅先就外國學習者應該知道的大原則加以探討，至於更深入、更細節的比較討論，留待日後深研之。

## 6. 結言

ㄹ 為很強的主觀推測，即話者依據本身主觀的判斷來進行推測，通常用在第三人稱。之於 ㄹ ， ㄹ 것이다 相對客觀，而且沒有人稱的限制，一般是根據客觀情報來推測。這兩種用法除了推測外，尚有意志的語意。相對於 ㄹ 和 ㄹ 것이다 的相似性， ㄹ 것 같다, ㄹ 모양이다, 는가나 보다 3 種用法的屬性也很類似，都是透過某些情況來推測，不同的是， ㄹ 것 같다 判斷的依據須為直接經驗，所以較為主觀，此外，人稱的不限亦是差異之處。

本文以首爾大、延世大、高麗大 3 本舊教材和梨花女大、慶熙大 2 本新教材，以及韓國語世界化財團的『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國立國語院的『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이희자・이중희的『韓國語 學習用 語尾・助詞辭典』，以及백봉자의『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等 4 本語法殊為對象，針對書中 5 種推測用法的解說做比較，結果發現，3 本舊教材的文法說明明顯不夠，5 種句型的解釋皆以「推測、猜測」一語帶過，雖然教材中試圖藉由例句的練習來讓學習者熟悉句型，但語法機能的解釋仍嫌不足，例如這些句

<sup>19</sup> 特別感謝韓國語世界化財團김진형、韓國外國語大學박창수等教授的校對指導。

型的差異為何，無法從中得知，當然也就容易引起混淆與誤用。

新教材與舊教材最大的不同在於，新教材較站在學習者的立場，為了方便外國人學習，運用了統合構造體與共用、制約的原則（如아마~ㄴ 것이다），讓學習者可以更清楚句型的使用與限制，以降低誤用的情況發生。然而，無論新舊教材，用法的解說、相似句型的比較等情境或文法說明的不足，仍是普遍存在的問題。如何補充以便外國學習者學習與應用，是教材編著者的一大課題。

本文站在韓國語教育的立場，比較了教材裡對 5 種推測句型的詮釋，雖然文中亦分析其用法的異同，但更細部的文法研究尚嫌不足，這些未盡事宜之課題，留待筆者日後繼續研究。

## 參考文獻

### 論著

- 강소영(2001), “양태 표지 '-ㄴ 터이-'의 의미”, 「韓國語 意味學」9, 韓國語意味學會, 179-197
- 강소영(2002), “확연, 당연, 개연의 양태표지 연구”, 「韓國語學」16, 韓國語學會, 217-236
- 강소영(2003), “양태표지의 선택에 관한 연구”, 「梨花語文論集」21, 273-294
- 高永根(1965), “현대국어의 서법 체계에 대한 연구”, 「國語研究」15
- 高永根(1986), “서법과 양태의 상관관계”, 「국어학신연구」(약천 김민수 교수 화갑 기념), 서울:탑출판사
- 高永根(1994), 「국어문법의 연구」, 서울:탑출판사
- 김규철(1988), “모습의 ‘겠’과 바탕의 ‘을 것’”, 「冠岳語文研究」13, 首爾大
- 김동욱(2000), “한국어 추측표현의 의미차이에 관한 연구”, 「國語學」35, 國語學會
- 김정혜(1997), 「양태표현의 ‘모양이다’구문 연구」, 梨花女大 碩士論文
- 김지은(1997), “양태 용언 구문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 「한글」236, 한글학회, 161-193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韓國文化社
- 김홍수(1983), “‘싶다’의 통사의미특성”, 「冠岳語文研究」8, 首爾大
- 박병선(2000), “현대 국어 양태 표현의 변천: 서법 내용을 중심으로”, 「현대국어의 형성과 변천 2」(홍종선 편), 서울:박이정.
- 박선옥(2005), 「국어 보조동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亦樂出版社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太學社
- 서정수(1977), “‘겠’에 관하여”, 「말」 2, 延世大語學堂
- 서정수(1978), “‘르 것’에 대하여”, 「국어학」 6, 국어학회
- 안정아(2003), “‘것’, ‘터’, ‘모양’의 양태 의미 연구”, 「語文論集」 47, 民族語文學會, 105-128
- 오미남(1998), “추측의 ‘겠’과 ‘르 테니까’에 대한 수업모형 연구”, 「한국어교육연구」1, 서울대 한국어 교육 지도자과정 제 1기 수강생의 수료기념 소논문집
- 이기종(1996), 「국어의 짐작, 추측 구문 연구」, 한남대 博士論文
- 이기종(2001), 「우리말의 인지론적 분석」, 亦樂出版社
- 이남순(1981), “‘겠과 르것’”, 「冠岳語文研究」 6, 首爾大
- 이미혜(2002),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 ‘표현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韓國語教育」 13-2, 國際韓國語教育學會
- 이미혜(2005),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박이정
- 이병기(1997), “미래 시제 형태의 통시적 연구: ‘-리-’, ‘-르 것이-’, ‘-겠-’을 중심으로”, 「國語研究」 146, 國語研究會.
- 이소연(2004), 「한국어 교육에서의 추측 표현 연구」, 韓國外國語大學教育大學院 碩士論文
- 이필영(1998), “국어의 인지 표현에 관한 연구: 관형구성의 불확실성 표현을 중심으로”, 「韓國語教育」 9-2, 國際韓國語教育學會, 179-198
- 이혜용(2003), 「짐작, 추측 양태 표현의 의미와 화용적 기능」, 梨花女大 碩士論文
- 이운진·노지니(2003), “한국어교육에서의 양태 표현 연구 : ‘추측’과 ‘의지’를 중심으로”, 「韓國語教育」 14-1, 國際韓國語教育學會, 173-209,
-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韓國語 意味學」 12, 韓國語意味學會, 127-153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塔出版社
- 장미선(1994), 「보 조 동 사 ‘보다’의 담화기능-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측면에서」, 梨花女大 碩士論文
- 장원철(2000), 「추 정 표현 ‘겠’과 ‘을 것이’의 의미차이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서울市立大 碩士論文
- 전나영(1998), “‘나 보다/르 모양이다/르것같다/르것이다/겠’의 의미 기능”,

- 「말」 23,24, 延世大語學堂
- 정유남(2006), 「현대 국어 추측의 양태 의미 연구」, 高麗大 碩士論文
- 차현실(1983), “보조용언의 인식양상1”, 「京畿大論文集」 13
- 차현실(1986), “양상술어의 통사와 의미”, 「梨花語文論集」 8,梨花女大
- 최재희(1996), “국어 의존동사 구문의 통사론: 싶다, 보다, 하다를 중심으로”, 「한글」 232, 183-210
- 한송화(2000), “한국어 보조용언의 상적 기능과 양태기능, 화행적 기능에 대한 연구”, 「韓國語教育」 11-2, 國際韓國語教育學會, 189-209.

#### 教材

- 慶熙大學國際教育院韓國語教育部(2004), 「韓國語 初級、中級」, 慶熙大學出版局
- 高麗大韓國語文化研修部(2001), 「韓國語 1, 2, 3, 4」,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 高麗大韓國語文化研修部(2001), 「韓國語會話 1, 2, 3, 4」,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
- 國立國語院(2005), 「외국인을 위한 韓國語文法 2」, Communication Books
- 백봉자(199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延世大學出版部
- 首爾大語學研究所(2000), 「韓國語 1, 2, 3, 4」, 文進 media
- 延世大韓國語學堂(1992), 「韓國語 1, 2, 3, 4」, 延世大學出版部
- 梨花女子大學語言教育院(2006), 「말이 트이는 한국어 I、II、III、IV」, 梨花女子大學出版部
- 이희자·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조사 사전」, 韓國文化社
- 韓國語世界化財團(2006), 「외국인을 위한 韓國語 學習 辭典」, swprime

